

서양노동권익센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결과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 3년 동안 본 사업을 통해 자치구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3년의 시간이 방증하듯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서비스산업, 도심제조업, 방과후 강사,
뷰티산업, 특성화고 등과 같은 특정산업 노동자부터 서울
지역 내 노동자까지 많은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의 노동 - 2018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결과자료집>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에서 한걸음 나아가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Union City’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발표회에 참여하신 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분들의
열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어느 곁에 12월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달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럿이 함께 하는 일에는
시간 약속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던 일들을 갈무리
해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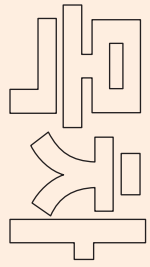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마치 토목공사명과 같아 보이지만 이 사업은 지역에서,
노동 현장에서 다양한 노동자를 만나고 이들의 노동과 삶을 이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기업에 종속된 개념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노동을 많이 하고, 오래 하기로 소문난 서울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만연해 이곳에서 노동복지와 노동인권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 ‘노동인권지킴이’ 역을 맡아
헌신하시는 단체와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동등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닌 노동자와
노동 현장에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시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시간에, 노동을 하는 공간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 곁의 노동 - 2018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결과자료집>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분석과 가정,
계획이 가장 적절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을 같이
해보자는 손 내밈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애를 써주신 지역현장 단체 활동가 여러분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지역 노동자·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문종찬



인사말 02

발간사 03

서울노동권익센터 소개 06

들어가며 08

지역에서 만난 노동 10

#송파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모두의 특별한 노동 22

#심야 노동자

#청소년·청년노동자

#교육 노동자

#노동과 지역의 만남

#여성 노동자

#도심제조업 노동자

나오며 77

애프터노트 78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한 노동단체 84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운영하는 기관이다. 일터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일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취약노동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맞는 대안정책을 제시한다. 각종 권리 교육과 캠페인으로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하는 당신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노동자, 민·관 노동단체 네트워크를 엮어가고 있다.

미션 |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비전 | 취약계층 권익옹호의 광역허브 기능 구축과 노동거버넌스 모델 선도

목표

1. 노동기본권 향상과 복지 증진
2.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노동존중도시 구축
3. 노동권익 증진 인프라와 네트워크 확대

주요 활동

1. 기획협력

- 지역별, 의제별로 특화한 민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운영
- 서울시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및 민간 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축
-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운영

2. 법률지원

- 공인노무사의 상시 노동상담
-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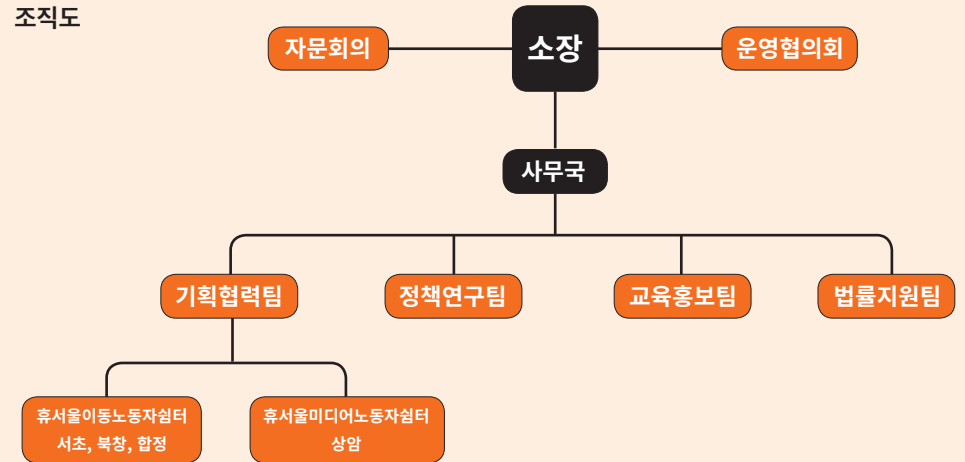
3. 교육홍보

-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노동 교육 <서울노동아카데미>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교육> 진행
-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캠페인 진행

4. 정책연구

- 서울시 노동 이슈와 동향 연구 및 노동 의제 발굴
-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서울노동권익포럼과 정기 토론회 개최

조직도



연혁

- 2014. 12. 서울노동권익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서울특별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15. 02.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식
- 2015. 05. 2015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 2015. 09. 제1회 정기토론회 '청년실업, 이렇게 풀자' 개최
- 2015. 11. 제2회 정기토론회 '노동의 시작, 청소년 노동인권은 안녕한가요?' 개최
- 2016. 03. 휴서울이동노동자처소침터 개소
- 2016. 04. 2016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2016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 개시
2015 상담사례 분석보고서 <서울시민과 나는 노동상담> 발간
- 2016. 10. 제3회 정기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개최
- 2017. 02. 2017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 2017. 03. 휴서울이동노동자장교침터 개소
2017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 개시
- 2017. 11. 휴서울이동노동자합침터 개소
제4회 정기토론회 '달려온 3년, 걸어갈 3년 함께 말하다' 개최
- 2017. 12. 서울노동권익센터 재위탁 협약 체결(서울특별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18. 03. 2018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개시
- 2018. 05. 2018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공모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개소
중소사업주 교육 스타트업 AtoZ 개시
- 2018. 07. 2017 서울시 노동상담 분석보고서 <서울시민과 나는 노동상담> 발간
- 2018. 09.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 아파트 경비 노동자편 > 캠페인 진행
- 2018. 11. 제5회 정기토론회 '이런 노조는 처음이라 - Union City 서울에서 노조할 권리 찾기' 개최
- 2018. 12. 2018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결과발표회 개최

노동권의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탄생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만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지역(자치구)에서 오래 활동해온 민간 노동단체, 노동조합, 컨소시엄 단위를 지원했다. 또한 서울의 특수한 노동 현실을 조사·분석하는 의제별 사업을 위해 서울 소재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단위도 지원하였다.

201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개 단체의 30개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 노동실태조사,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역 내 노동자를 위한 노동 교육, 노동조합 조직, 문화복지사업, 캠페인 등이 이루어졌고, 성별, 세대별, 직군별, 고용형태별로 다양한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알렸다.

2018년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자치구노동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의 노동역량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보다 더 힘을 쏟았다.

앞으로 주민노동자 활동가 양성, 풀뿌리 노동 네트워크 구축 및 취약계층 노동자 참여 활성화, 취약계층 노동기본권 지원체계, 지방자치 단체 거버넌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권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기록집 <우리 결의 노동 - 2018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결과자료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한

노동자와 단체의 목소리를 담았다.

서울 지역의 다양한 노동자들은

지원사업을 통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자조모임, 지역 기반의 노동자학교 건립 등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지역에서 노동권을 만드는 공간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시민을 만나고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장에는 2018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꿈꾸고 있는 단체를 모았다.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과 서울노동광장,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2015, 2016년부터 장기지원으로 지역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없는 송파행동

단체명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

사업명

롯데월드 송곳찾기!(2016)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노동자학교(2017)
생각보다 가까운 노동조합, 생각보다 가까운 노동현실의 변화(2018)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84, 서원빌딩 303호

연락처

1661-1491

홈페이지

facebook.com/songpalaborfree

단체소개

2017년에 설립된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은 비정규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파구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모인 연대단체다. 이들은 송파구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 롯데월드 노동실태 기초조사사업
- 청년정책입법 프로젝트 : 송파구 현실에 대한 자료조사 및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송파구 청년기본조례를 함께 만드는 청년컨설턴트 모집 등
- 의정감시 모니터링 : 구의회 방청 및 의견제시 등
- 송파구 지역 노동조합 '송파유니온' 창립 등



롯데월드 송곳찾기!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은 송파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16년 사업에 지원했다. 롯데월드 지구(롯데월드, 잠실역, 신천역 등 일대)에서 청년 노동자를 만나 노동권리 캠페인과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법률상담의 체계를 확보했다. 또한 롯데월드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그들의 노동환경도 파악할 수 있었다. 캠페인과 설문 조사에서 배포된 유인물과 명함으로 상담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으며, 이후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노동자학교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은 2016년 실행한 실태조사를 넘어 지역에 확고하게 뿌리 내린 노조,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노동자학교>를 기획했다. '노동운동사', '노동조합법' 강연 뿐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조의 필요성과 활동방안에 관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후속 모임을 만들어 단체를 이끌 노동자층을 발굴했다. 노동법률학교에서는 50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법 총론 및 비정규직법',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이론 교육과 한국 사회 노동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직업으로 이루어진 비정규직 노동자 90명이 모여 비정규직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활동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 또한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을 조직하여 지역 내 노동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생각보다 가까운 노동조합, 생각보다 가까운 노동현실의 변화

송파구 잠실, 가락시장, 가든파인브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은 노동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자 2018년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송파구 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유공간 '공간 더하기'를 오픈하여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노동단체의 연대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 내 경비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 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선정해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노동법률학교와 노동자학교를 기획하여 노동문제 해결능력을 키웠고, 참여자들이 **송파구 지역 노동조합 송파유니온**에 가입하는 성과도 이뤘다.

성과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증진 캠페인에 배포된 유인물과 명함을 보고 상담의뢰가 있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다.
- 송파구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이들을 이끌 노동자층을 발굴했다.
- 2018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노동법률학교에 참가했다. 참가자 중 10명은 송파유니온에 가입했고, 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에 참여했다.



1) 송파유니온은 송파구 지역 노동조합으로 2018년 8월 29일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현재 송파구 가락시장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단체명

서울노동광장

사업명

건강한 일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노동인권 첫걸음(2016/2017)
건강한 일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노동인권 사업(2018)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카페봄봄

연락처

070-7534-9117

홈페이지

blog.naver.com/cafebombomi

단체소개

2004년에 설립된 서울노동광장은 교육, 생활, 투쟁의 공동체로 노동자 교육을 위주로 활동하는 단체다. 노동과 마을의 합체를 꿈꾸며 지역에서 일상적인 노동을 이야기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확장과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 지역 커뮤니티 공간 '카페봄봄' 운영
- 영등포 노동인권해봄이 발족
- 돌봄 노동자 근골격계 예방질환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 돌봄, 서비스업종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치유를 위한 마음건강 교실
- 영등포 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인권 배움터 등



건강한 일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노동인권 첫걸음

서울노동광장은 노동사업이 한 번도 진행된 적 없던 영등포를 기반으로 지역 내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다. 특히, 지역 돌봄 노동자들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과 감정노동 치유를 위한 마음건강 교실에는 48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인권에 대해 배우고, 공감하고, 연결하고, 실천하는 영등포 노동인권 배움터를 열어 개별 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영등포에서 처음 실행된 노동사업을 통해 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고정적인 활동 주체를 만들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와 만나 향후 돌봄 노동자사업의 단초를 마련했다.

2016년 사업 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자를 위한 '스트레칭 교실', '마음건강 교실', '노동인권 배움터' 강의를 이어나갔다. 1박 2일 워크숍으로 진행된 '노동인권 배움터'는 노동자들이 게임을 통해 노동인권을 배우고, 서로 친밀해지는 자리가 됐다. 또한, 방문 노동자들을 위한 '우리집에 온 노동자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기획하여 영등포역에서 스티커를 배포하고, 사진전을 여는 등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동네 노동인권 공감밥상 프로그램'은 방문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식사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7년 사업에 200여 명의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배우며 노동 인식을 변화시켰다.

2017 우리동네 노동인권 공감밥상 후기

“정성스런 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많은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동네 노동인권 공감밥상을 통해서 노동의 권익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낼 때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밥이 너무 너무 맛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각기 다른 업무를 하는 영등포 지역 노동자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계속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렵פות이 알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니 우리의 권리와 노동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먼저 챙겨 주어야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2017 마음건강 교실 후기

“야외 나가는 시간도 있고 매번 기다려지는 수업이었어요. 과제가 없어서 부담도 없고, 무리 없이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붙들고 연연했던 것들로부터 한 발짝 멀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건강한 일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노동인권사업

영등포 지역에는 노동조합이 많은 편이지만 지역 전체 노동환경 개선을 고민하는 단체는 거의 없었다. 서울노동광장은 노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영등포 내 방문 노동자와 주민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사업을 진행했다. 컨소시엄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별 진행팀을 나누고 방문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²⁾을 운영했다. 주민 노동자의 노동인식 개선사업으로 ‘그림책으로 배우는 노동인권 모임’을 열어 젠더, 난민 이슈 같은 사회적 현안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해봄이 발족’을 통해 영등포 지역 내 노동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밥으로 공감하며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읽기’ 프로그램은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이 만나 식사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해까지는 참가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노동문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참가자들이 제안한 노동법, 제도 교육 등을 토대로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강연에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사회적협동조합 가가호호 돌봄센터 등 단체활동가 및 노동자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성과

- 영등포에서 처음으로 돌봄 노동자 스트레칭 교실, 마음건강 교실을 진행해 실제적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몸·마음 건강이 향상되고, 일정한 활동 주체가 만들어졌다.
- 노동인권 배움터 참가자들이 영등포 지역과 노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 참가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
- 방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 노동자들 간의 관계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율이 높아졌고, 다른 노동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2) ‘우쿨렐레로 배우는 노동인권’, ‘몸퍼기 운동’, ‘마음건강 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우리동네노동권찾기

3

단체명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사업명

감정노동 활짝! 감정 노동자 권익 증진사업(2015)

동대문구 노동하는 사람들의 첫 연대(2016)

동대문구 노동하는 사람들의 첫 연대 - '쌈' 넘어 단단한 연대체로!(2017)

동대문구 노동하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연대(2018)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8길 8, 3층

연락처

02-6081-1700

홈페이지

blog.naver.com/woodong615

단체소개

2015년 설립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노동자의 권리문제가 지역 내 노동자 공동체 조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고, 더 나아가 노동을 하고 있는 모두의 권리가 소중히 지켜지기 위해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 동대문구 중심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우리동네 노동인권 지도 제작
- 우리동네 노동인권 지킴이 양성 프로젝트
- 감정 노동자 치유 프로그램
- 학교급식 노동자 스트레칭, 한의학 상담
- 노무사 노동인권 강사 양성
- 고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교육 등



감정노동 활짝! 감정 노동자 권익 증진사업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감정 노동자를 위해 2015년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우선, 감정노동 캠페인 참여단을 모집하여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실행한 후에 노동인권 지수 설문 조사, 감정노동 캠페인·좌담회 등을 진행했다. 노동인권 지수 설문 조사에는 총 510명이 참여했고, 감정노동 캠페인은 서울 시내 백화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감정 노동자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 감정노동 좌담회를 개최하여 감정노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2015년 사업은 각종 언론을 통해 활동이 보도되면서 감정 노동자가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대문구 노동하는 사람들의 첫 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2016년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연대체를 구성하고자 했다. 92명의 동대문구 지역주민과 감정 노동자(병원 노동자, 콜센터상담사 등)들이 '명상치유 프로그램'과 '무용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개별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학교급식 조리사와 노무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상담 프로그램³⁾도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노동 야간 학교(동동야학)'를 개설하여 지역 내 노동조합, 시민단체 및 마을활동가들이 노동문제 관련한 특강도 들을 수 있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예비 노동자와 함께 월례모임을 만들어 취업 대비 면접특강과 정세강연, 노동인권감수성 교육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 마을활동가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참가자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의 후원회원이 됐다. 또한 동대문구 최초 활동 연대체인 '행동하는 동대문 연대'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동대문구 노동하는 사람들의 첫 연대 - '쌈' 넘어 단단한 연대체로!

2017년 <동대문구 노동하는 사람들의 첫 연대 - '쌈' 넘어 단단한 연대체로!> 사업을 통해 기존 컨소시엄 단체와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지역 내 노동인식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확대하고(동대문 노동 야간 학교, 동대문 노동 축제 등), 청년 비정규직 당사자 모임 안착화와 청년 비정규직 노동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노동자와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⁴⁾을 지속적으로 기획했다. '노무사들을 위한 노동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강의 이상으로 노동과 지역연계를 위한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며 이후, 참여자들이 동대문 노동 야간 학교, 동대문 노동 축제에도 참가하여 자연스럽게 연대했다. 청소년 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은 경희대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노동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캠페인과 특성화고 및 일반고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고졸취업자 동아리 '처음처럼'을 운영했다. 2016년도부터 함께한 단체들과 동대문구 노동 축제를 열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지역주민이 만나 노동에 대해 인식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동대문구 노동하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연대

동대문구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이 상당히 낮아 노동인권보호에 취약하다.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동대문구 노동권의 증진사업은 일자리 연계 정도로 그치고 있다.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민간차원에서 노동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2018년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시민들의 노동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시민노동 법률학교'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인 노무법인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산업재해로 규정된 출퇴근길 재해', '시간외수당', '연장근로' 등의 교육을 밀도 있게 진행했다. 강의형 교육이었으나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며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 직업군이 모여 학습하는 장이 됐다. 또한 경희대 청소년 노동자 조합원들의 라인댄스 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고졸 취업자와 전문대 청년동아리인 '처음처럼' 운영을 강화했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도 만들었다.

성과

- 감정노동 캠페인과 좌담회를 진행하며 감정노동에 대한 서로의 '공감'과 '이해'가 절실함을 깨달았다.
- 사업을 통해 쌓인 활동들로 최초의 동대문구 연대체인 '행동하는 동대문 연대'가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 매회 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여 연대의식이 강화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컨소시엄 단체도 섭외할 수 있었다.
- 청년 비정규직 당사자 모임 '처음처럼' 동아리가 2기 회원들까지 성공적으로 모집되어 당사자모임 내 체계와 정형을 만들었다.

2017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춤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후기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동료들의 마음을 나누면서 비슷한 생각, 고민을 나누고 그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도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치유되어야 할 마음이 있음을 알고 나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려있던 마음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되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 된 것 같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동료들과 같이 춤도 추고 얘기도 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2018 동명기술공단 노동조합 아빠와 함께 떠나는 캠프 후기

“자녀들과 눈을 감고 산을 느끼는 힐링타임은 자녀가 이끄는 대로 경험해보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직업이었는데 캠프에서 자녀와의 소통법, 나를 알기, 비폭력대화, 나를 전달하기 등 여러 대화법에 대해 소개해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 경희대학교 청소년 노동자 라인댄스 활동 후기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이 비정규직 사업장에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계발도 하고 마음껏 취미생활도 가능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노동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서로의 고달픔과 힘듦을 공감하는 계기도 되고 그를 통해 다양한 삶과 고민을 함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스트레칭 교실', '한의학 건강상담', '노무사를 위한 노동인권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 4) '건강지원사업', '법률교육지원사업', '노무사들을 위한 노동인권강사 양성과정', '동대문구 노동인권활동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3.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비밀 정보 취약 사태

#심야 노동자

“돈 때문에 '밤샘알바', 청년들이 위험하다”
“제2의 PC방 사건?’ 위협에 노출된 심야 알바생”
“편의점주 37.9% “쉬는 날 없다”... '365일 24시간 영업’
노동 강도 너무 세”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노동자, 두고만 볼 것인가”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노동부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중업무수행 근로자관리방안』(2011)에 따르면, 심야노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세대는 청소년과 청년, 55세 이상이다. 각종 질병과 심야노동의 연관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성인 노동자 심야노동에 대한 규제는 어디에도 없다.

리빙액트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각각 청소년·청년계층,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심야 노동자에 관심을 두고 실태조사와 다양한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리빙액트

1

단체명

리빙액트

사업명

관악지역 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2015)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87, 두산아파트 1단지 상가 6층

단체소개

2014년 창립된 리빙액트는 관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모여 청년의 노동,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만들어왔다.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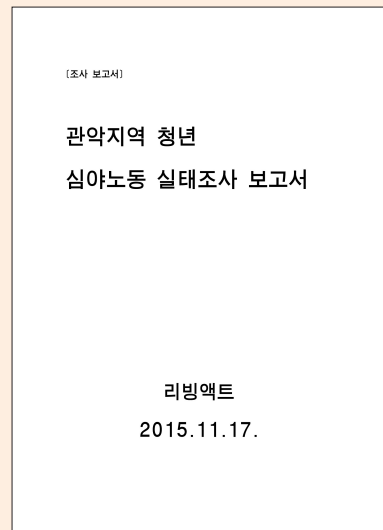
- 지역 내 청년들과의 간담회
-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 등 관심 분야 강연 및 토론
- 관악지역 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 등

관악지역 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

리빙액트는 1인 및 청년 주거 비율이 높은 관악 지역의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하고자 사업에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의 사각지대 있는 심야 아르바이트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악구에서 심야노동을 하는 청년 150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형 노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계형 노동이 증가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수면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리빙액트는 지역 청년 심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건강권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심야 노동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과

- 관악구 청년 심야 노동자 150명을 만나 그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했다.
- 실태조사사업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점주가 사업장의 문제 또는 고용형태·노동환경 문제를 조사하는데 협조적이지 않았다. 앞으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청년 심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건강권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악지역 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 보고서 / 2015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2

단체명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업명

대리운전 기사 직무역량 교육(2017)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9, 부림빌딩 6층

연락처

1688-8232

홈페이지

cafe.daum.net/ThePDA

단체소개

2012년 설립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010년, 인터넷 카페 '대리기사' 회원들이 모여 업무정보, 초보기사 교육, 사고처리 안내 활동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다. 이들은 대리운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국토교통부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014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대리운전 기사의 직업환경과 안전 및 보건』,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종사자(대리운전, 퀵서비스) 지원방안연구』 등의 실태조사, 정책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근로자건강센터와 제휴하여 대리기사의 건강 점검 및 개선, 공익법인과 연계한 법률지원, 직업인으로서 대리운전 기사의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는 등 전국 20만 명의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

- 업체의 부당 횡포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경기·인천 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대리운전 기사의 지역사회 기여모델 밤길안전지킴이 캠페인
- 심야노동, 대리운전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직무 교육 교재 개발
- 직무 정보 교류 커뮤니티 운영 등



대리운전 기사 직무역량 교육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기존의 대리운전 교육방식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기능 교육과 고객에 대한 친절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현장 중심 직무 교육을 기획했다. '직무역량 기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262명의 대리기사들이 '안전운전 교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직무 교육' 등의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일정한 일터가 없어 동료 찾기 힘들었던 대리운전 기사들이 '멘토링 팀 아카데미-12인 팀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동료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 직무안전 교육, 직무기초 교육, 팀코칭방법론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을 당당한 자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직무 자가진단의 도구로 활용하여 정보교류 모임을 활성화했다. 궁극적으로 대리운전 기사 스스로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 심야 노동으로 오는 폐해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자발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했다.

성과

- 오프라인 교육과정에서 총 441명(연인원)의 대리기사들이 참여하였다.
- 대리기사 스스로 현장전문가로서 직업 환경의 특성과 근무관리, 건강관리 같은 직무 점검 내용을 정리하여 직무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해냈다.



알바상담소

단체명

알바상담소

사업명

알바 권리 찾기 ABC(Academy, Broadcasting, Campaign)(2015)
찾아라! 알바의 힘!(2016)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연락처

1800-7525

홈페이지

cafe.naver.com/talkalba

[facebook.com/talkalba](https://www.facebook.com/talkalba)

단체소개

2014년 설립된 알바상담소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 무료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활동,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 기초·심화 노동법 강의
- 전화상담 및 인터넷 커뮤니티 무료상담
- 아르바이트 상담사 심화 교육 : 노동법 교육, 실전 상담 및 첨삭
- 서포터즈 운영 : 또래 상담사 양성
- 아르바이트 상담사례집 발간 등

#청소년·청년 노동자

“아르바이트 고교생 64% “막말·욕설 들었다”

“노동청 택배 현장감독 때도 청소년 심야노동”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한알바’”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다”

“비정규직 청년사망 ‘구의역 사고’ 2주기 맞아...“비정규직 여전히 부품”

—
청소년·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적 모독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2017년, 한 통신사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학교 학생은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했고, 고객과 상사의 질타를 받다

끝내는 자살을 선택했다. 이처럼 청소년·청년들은

노동인권을 박탈당하며 노동자 신분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알바상담소와 은평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소년·청년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실태조사를 해나갔다



알바 권리 찾기 ABC(Academy, Broadcasting, Campaign)

알바상담소는 연간 500여 건 이상의 노동상담을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2015년, 대학생,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설정하여 매월 1회 기초노동법 교육과 심화노동법 교육 1, 2기를 운영했다. ‘근로기준법 및 권리구제 방안’,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부당해고와 권리구제’ 등의 강연은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수업이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에 관심 있는 노무사, 로스쿨 학생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찾아라! 알바의 힘!

<찾아라! 알바의 힘!> 사업은 알바상담소가 위치한 마포 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정보를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매월 노무사와 함께 기초노동법 강의를 열어 노동법에 관심 있거나 필요로 하는 청년을 만났다. 자화상 직접 그려보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 프로그램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알바의 힘 알리기 캠페인’으로 다수의 시민을 만나 아르바이트 권리 증진을 위한 안내를 하기도 했다. 2016년 사업을 통해 673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났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노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성과

-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찾아라! 알바의 자존감’ 프로그램에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다.
- ‘알바의 힘 알리기 캠페인’에서 길거리 현장상담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추후 유인물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온 노동자들이 있었다.



단체명

은평노동인권센터

사업명

노동자는 노동자다(2016)

청소년 노동인권 토닥토닥 다지기(2017)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은평상상허브 NPO센터 3층

연락처

02-6339-8272

홈페이지

epnodong.net

단체소개

은평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민주노총의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각 단위 대표자들이 모여 '우리동네 노동자 인권찾기 모임'으로 시작했다. 이후 '우리동네 노동자 인권찾기 모임'은 네트워크로 유지하고, 각 단위 대표자 모임이 운영위로 구성된 은평노동인권센터로 전환됐다. '일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은평노동인권센터' 슬로건으로 은평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만남과 교류, 노동인권 개선과 함양, 노동자생활문화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 노동인권 개선사업 : 노동상담, 노동인권 개선 캠페인, 시민노동법률학교, 청소년노동인권사업 등
- 생활문화사업 : 은평 노동자 컴퓨터교실, 인문학 교실, 돌봄 노동자 밥상모임 등
- 지역연대 활동 : 은평 인권 조례 제정 민-관 TF팀, 은평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등



노동자는 노동자다

은평노동인권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과 노동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나누기 위해 2016년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를 열었다. 또한 노동자 인문학 교실과 돌봄 노동자 밥상모임 같은 생활문화 활동으로 노동자로서 자긍심과 연대의식을 함양하고자 했다. 청소년노동인권캠프 '숨;침'은 청소년 33명이 1박 2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노동인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나'를 살리는 노동자 인문학 교실은 '나를 표현하는 미술 특강'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260명의 노동자들을 만났다. 돌봄 노동자들과 전문 강사가 함께한 돌봄 노동자 밥상모임 수다로 마음열기는 '스트레스를 잘 푸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고,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돌봄 노동자 권리 특강도 진행했다. 이는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일하는 주민들의 노동자 정체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 청소년인권캠프는 이후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확대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청소년 노동인권 토닥토닥 다지기

은평노동인권센터는 여러 해 동안 실행한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으로 **청소년 시기에 참여하는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 2회 청소년노동인권캠프 '숨;침'을 열었다. 지난해와 다르게 캠프 참가자들이 기획자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캠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된 노동 교육 프로그램은 평소 청소년들이 갖고 있던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캠프 강사단으로 참여한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을 더 이해하고,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로서 자기전망을 다지게 됐다.

성과

-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을 확장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일하는 주민의 노동자 정체성 향상에 기여했다.
- 청소년노동인권캠프를 통해 청소년들과 연대와 소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향후 노동인권활동 주체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인식을 가지고, 노동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관 및 단체들의 노동인권 교육의 요구가 더 늘어나게 됐고, 노동사업의 필요와 은평노동인권센터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

단체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업명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2016)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연락처

02-324-8633

홈페이지

www.kilsh.or.kr

단체소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 연구단으로 시작해 2003년, 지금의 연구소로 변화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지역회원들과 함께 단체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자 각자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한 노동이 가능한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
-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공동연구
- 노동자 건강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
- 노동과 관련된 안전과 보건 문제를 다룬 월간지 '일터' 발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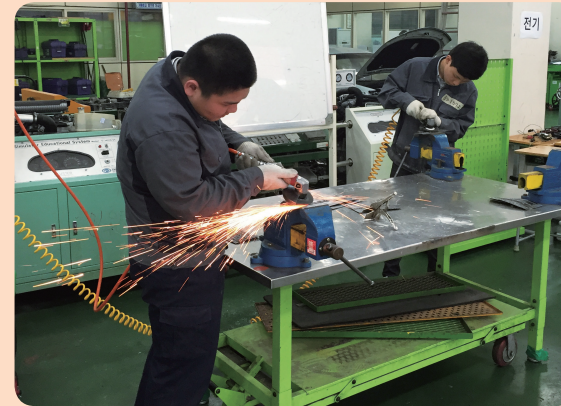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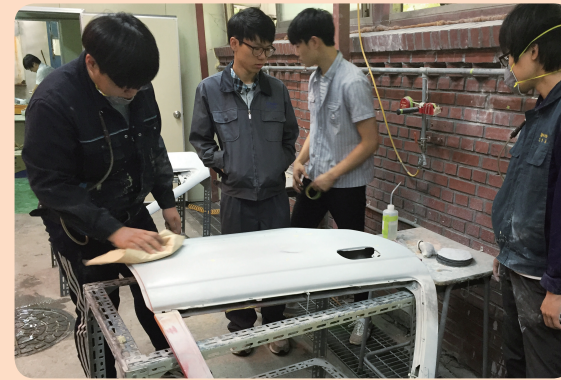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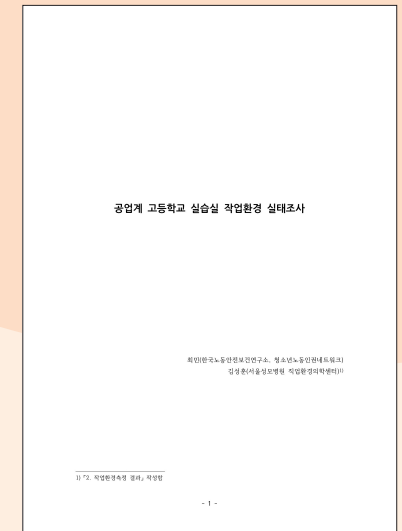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성화고 실습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했다. 서울시내 공업계 특성화고 두 곳을 방문하여 기계과(용접), 자동차과(정비, 판금, 도장) 실습실 내부 소음과 용접흄⁵⁾ 및 분진, 금속류, 혼합 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습교사와 실습생 개별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만, 개인보호구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 당사자의 낮은 노동안전보건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무엇보다도 공립/사립학교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학교에서는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학교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교직원과 학생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실습실 환경 기준을 만들어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실습실'을 실제 구현해야 한다.

성과

- 서울시 최초로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그동안 학교보건과 산업 보건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했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한산업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다양한 관련 전문 단체들과 패널 토론 및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에 관한 관심을 환기했다. 12월 노동권익센터 포럼, 직업환경의학회심포지움 등도 진행했다.



5) 용접흄은 용접 작업에서 금속 증기가 응축되고 냉각될 때 생성되는 작은 입자 부유물이다. 용접 시 발생하는 물질들은 호흡기 질환 및 암에도 영향을 준다. [안전보건공단 공식블로그] 용접흄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2017. 1. 3.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 2016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단체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업명

서울지역 방과후 강사 실태조사(2015)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연락처

02-393-2010

홈페이지

cafe.daum.net/anmkook

단체소개

2010년 설립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전국 40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

- 서울시교육청과 일상적 노사협의
- 직종별, 지회별 노동 교육
- 노동법, 산업안전, 노동인권상담
- 서울시의회와 각종 정책 간담회
- 조례(서울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 등

#교육 노동자

"방과후학교 강사 '노예 계약서' 시름"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열악 권리보장 제도적 장치 시급"

"맘카페 유언비어'에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6명 입건"

"보육교사 '무급 점심 노동' 몰랐나... 호들갑 나선 정부"

—

방과후 강사들은 초등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대다수를 책임지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특수한 노동자 신분으로 어떠한 법과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 또한 초과 근무는 물론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장임에도 생리휴가가 없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울지역분회 /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은 방과후 강사와 보육교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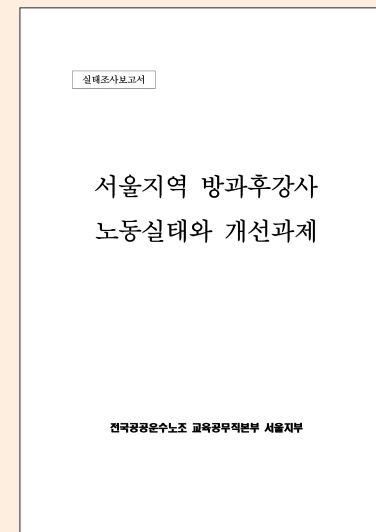


서울지역 방과후 강사 실태조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방과후 강사들이 초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82%를 책임지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방과후 강사들은 계약 및 고용형태, 급여, 교통비 등 천차만별의 조건에서 일하며 학교장의 절대적 권한과 위탁업체와의 재계약 여부, 학부모 민원 등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방과후 강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별적으로 흩어져있는 방과후 강사들을 조직화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 및 강사 관련 논문, 보고서, 기사 등을 연구하고 그 이후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실시해 500명 이상의 방과후 강사 의견을 받아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 노동실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방과후 강사들이 현재 근무 여건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특수한 노동자 신분으로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또한 위탁운영 확대로 인해 50% 가까운 강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 계약을 맺는 부당대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⁶⁾은 효율적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있을 뿐, 강사의 처우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방과후 강사들은 학교장의 절대적 권한에서 비롯된 강사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2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체결과 위탁운영 중단/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조례 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방과후 강사가 겪는 현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기초 작업으로 전체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방과후 강사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성과

- 방과후 강사의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서울 지역 강사들의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 설문 조사와 함께 방과후 강사 심층면담을 통해 위탁업체 및 학교와의 계약에서 겪는 문제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당사자의 참여로 실효성 있는 개선요구를 마련했다.
- 불합리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노동실태를 고발하여 제도·지침상의 개선방안과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면서 방과후 강사들이 제도 개선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지역 방과후 강사 노동실태와 개선과제 / 2015



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공통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작되었다. 2010년 9월,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자협의회가 조직되어 그해 12월, 시·도교육청 공동제작 후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를 위해 각 학교에 보급됐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울지역분회 /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

2

단체명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울지역분회 /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

사업명

동작지역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2017)

소재지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8길 46, 지하 1층

연락처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
02-6406-2752

단체소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005년 '전국보육노동조합'으로 출범하여 공공운수노조
하부조직 '보육지부'로 조직 형태가 변경된 후, 2007년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와
통합하여 '보육분회'로 변경됐다. 보육협의회 서울지역분회는 서울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은 동작구 지역사회의 노동의제를 담아내고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사회운동과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해왔던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블랭크,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FM 4개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체다.

주요 활동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울지역분회
보육교사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과 원직복직
보육협의회 상담활동 및 교육활동
보육협의회 보육 노동자 한마당 개최 등
-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
동작구 청년 월례모임 진행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노동권 상담활동



동작지역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다. 해당 조사에는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조사 내용도 담겨 있지만 조사 대상을 어린이집 '원장'에 한정하고 있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울지역분회와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은 보육교사 근로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동작 지역 보육교사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간담회와 FGI⁷⁾를 통해 여러 보육교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응답자의 인구학적 속성, 근무 중인 어린이집 특성, 직무 특성, 노동시간과 휴게 시간, 임금 문제 등으로 설문 조사 질문을 구성했다. 당초 동작구 전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진행하고자 동작구와 동작구 유아종합지원센터에 협조를 구했지만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보육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나눠주고,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했다. 77개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추가 간담회와 FGI를 진행하여 동작구 보육교사 노동실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 없는 9시간 이상 노동, 휴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 조건,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에 맞춰진 임금 체계와 그에 따른 잦은 이직 현상이 일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보육교사들은 8시간 노동 보장을 위해 보조 교사들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추가 수당 지급을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개인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여 권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연대체를 구성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

- 지역구청과 보육센터의 비협조로 계획한 설문 진행 방식에 차질을 입게 됐다. 결국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했지만 총 77건의 설문지를 회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 향후 동작구 형성된 보육교사 네트워크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실태조사 참여자 중심의 동작구 보육교사 단체 카카오톡과 밴드가 개설됐다.



동작구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 조사

강원대중앙대학교 박사수료/동덕여자대학교 강사

7)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은 통상 FGI로 불리며 집단토의(Group Discussion), 집단면접(Group Interview)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보통 6~10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이를 통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단 심층면접 (광고 조사 방법,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동작구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 2017

공동체 의 가 목 표 의 위 하 에

#노동과 지역의 만남

“노동자가 아프면 마을도 아프다, 마을이 아프면 노동자도 아프다”

“이주 노동자도 가족으로 끌어안은 마을공동체”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이 일터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뿐 아니라 관심자체가 적은 상황이다. 강동희망나눔센터와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지역주민과 지역 내 노동자가 서로 만나 간극을 좁혀나가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마을학교와 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강동희망나눔센터

1

단체명

강동희망나눔센터

사업명

노동자 마을학교와 찾아가는 상담(2016)

강동 노동자마을학교 ‘소금꽃’(2017)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82, 201호

연락처

02-473-7611

홈페이지

gdhope.net

blog.naver.com/kdlhc

단체소개

2011년 설립된 강동희망나눔센터는 강동구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비영리단체다.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나눔, 의료지원방문진료, 주거 개선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 강동구 노동자 마을학교
-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기본 교육
- 강동구 지역 청소년, 청년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



노동자 마을학교와 찾아가는 상담

강동희망나눔센터는 2016년, 노동 인식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에 참여했다. 강동노동자마을학교 '소금꽃'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이들이 직접 노동자학교 담임선생님이 되어 다섯 반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의와 모임 등을 진행했다. '노동계약 문제와 2016년 노동현실', '연대의 마음으로 소통하기'와 같은 노동현실에 관련한 8개 강의를 열었고 역사기행을 포함하여 242명의 지역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후, 소금꽃 1기 후속 모임이 형성되어 2기 노동자마을학교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지역의 거점과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10회의 노동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상담을 진행해 청소년 노동상담과 교육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 알리기 1기 활동과 청소년 '와글와글파티'를 매월 진행하여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강동 노동자마을학교 '소금꽃'

지속적으로 마을 노동자들이 만나고 관계 맺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2017년 노동자마을학교 '소금꽃' 2기가 만들어졌다. 센터는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마을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찾고 연대함은 물론 마을의 비정규직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립을 지원하며 '강동노동인권센터'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마을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몸 건강·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열어 '나다운 아름다움을 위하여-여성주의 미술이야기', '내 몸은 소중한', '나를 위한 글쓰기' 등의 강의를 열었다. 소금꽃 2탄 마을 노동자 인문학교실에는 '나, 그리고 노동자를 이해하고 글을 써보기', '노동인권감수성 실제사례공부' 등의 강의를 진행했고 서로 간의 관계형성과 지역공동체와의 밀착력을 강화했다.

성과

- 자발적으로 구성된 준비팀 진행으로 강동노동자마을학교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 강동노동자마을학교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강사단 회의로 회의체계를 만들고 강동 노동자학교의 내용 및 흐름을 단계적으로 수행했다.
- 마을 노동자 인문학 강좌뿐만 아니라 소금꽃밥상과 역사기행까지 통합적 노동자마을학교의 정형을 만들 수 있었다.

지원사업 이후

2년간의 지원사업이 씨앗이 되어 2018년 9월, 강동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다. 센터에서는 노동자 권리 향상과 지역생활문화 운동 및 지역 시민 활동과 다양한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강동 지역 노동자가 지역주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며 노동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2

단체명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사업명

강서양천 노동권의 증진사업(2016)

강서지역 노동존중문화 증진사업(2017)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81, 중고넷별관 2층

연락처

070-8277-7701

홈페이지

www.peoplehouse.or.kr

단체소개

2014년 설립된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은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신장과 지역사회 노동조합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는데 주력하며 각종 회의와 교육, 소모임과 취미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 노동사업 : 시민노동법률학교, 노동조합 활동가 기초과정 개설,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서구지부 활동 참여, 강서양천 지역 비정규직 연대모임 등
- 지역공헌사업 : 지역 내 노동조합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김장나눔행사 등
- 연대사업 : 강서마을넷, 양천마을넷 활동참여, 민관협치 논의 및 마을축제 참여 등



강서양천 노동권의 증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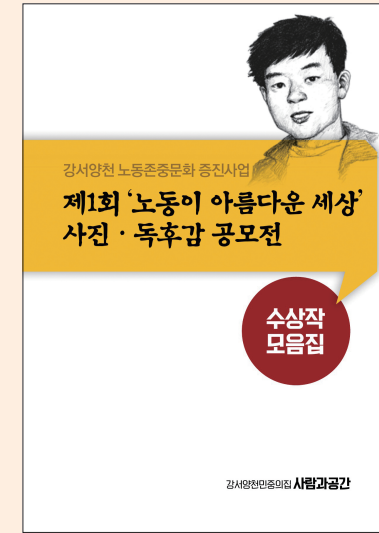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은 노동인권의식 신장과 지역 내 노동존중문화 확산, 주민 노동자의 건강 증진, 노동조합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자주적 노동자모임을 구성하고, 지역 활동가를 발굴하고자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강서양천 노동권의 증진사업>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돌봄 종사자를 위한 스트레칭 교실과 자가 건강 교실을 운영했다. 특강으로 진행된 노동인권 교육과 성희롱예방 교육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교육 이후 후속 소모임이 만들어졌다. 마을 주민들과 지역에서 거주 혹은 활동하는 사진, 독서 전문가들이 함께 북콘서트와 시상식을 기획했고 행사 당일 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지역 행사가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까지 담당하면서 지역 내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강서지역 노동존중문화 증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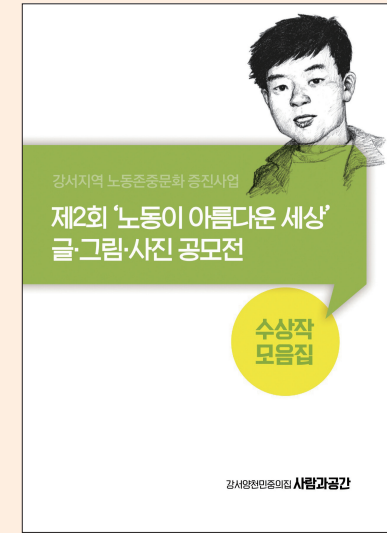
<강서지역 노동존중문화 증진사업>은 지역 내 노동자와 주민들이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노동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업을 만들고자 실행됐다. 글쓰기·그림·사진 세 분과를 설치한 뒤, '문화로 접근하는 노동'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여 145명의 마을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 중심으로 작품을 공모해 수상작 작품집 제작과 전시회를 개최했다. 각 분과별 수강생들은 이후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노동자 문화감수성 충전사업은 매월 1회, 노동을 주제로 한 영화, 책, 치유 등의 문화강연으로 참가자들이 '노동'이란 주제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사업에 참여했던 노동조합과 마을 활동가들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노동존중문화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성과

- 돌봄 종사자 건강 증진사업인 스트레칭 교실과 자가 건강 교실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노동인권 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특강도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소모임을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노동존중문화 증진사업은 첫 번째 공모전이라는 점에서 응모수가 기대치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지역사회에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노동존중 예술작품 공모사업은 노동이라는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문화예술과 접목시켜 무겁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 강좌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끼리 글쓰기·그림·사진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작품집 / 2016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작품집 / 2017



2.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성북구노동권익센터

3

단체명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사업명

2016년을 함께한 성북구노동권익센터(2016)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11,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206호

연락처

02-909-3988

홈페이지

sblabor.or.kr

단체소개

2017년 설립된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 지역이 일터인 노동자와 지역이 삶터인 주민들을 위해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법 교육, 문화·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활동

- 관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 노동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 노동권의 침해 사항에 관한 노동상담 및 노동법률 교육
-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 교실, 역사탐방 교실 등 다양한 문화사업 지원
- 감정 노동자, 관내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 증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등



2016년을 함께 한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 내 봉제업 종사자 120명(연인원)과 함께 '통증과 자기관리', '내 마음의 건강 지키기', '내 인생의 건강 지키기' 등의 건강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노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시민노동법률학교도 개최하여 최저임금, 퇴직금, 산업재해와 관련된 프로그램⁸⁾을 진행했다. 청년 노동자를 위해서는 '노동자,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직장의 꽃이라 불리는 사람들'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주 1회 성북구 무료노동법률상담과 매월 1회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도 실시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봉제업 종사자와 청년들이 노동인권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2017년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8) '최저임금, 퇴직금. 나도 권리가 있나요?', '다치고 싶어 다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성과

- 봉제 종사자를 위한 건강 교실과 시민노동법률학교를 개최하여 총 225명(연인원)의 노동자가 도움을 받았다.
- '청년, 성북으로' 행사를 개최해 40여 명(연인원)의 청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성북노동권익증진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지원사업 이후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의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성북노동권익증진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성북 지역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실태조사를 해나갔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6월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 개소했다. 이후 비정규직·영세사업장·여성·외국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통한 노동인권 향상과 관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 및 노동조합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동법 강좌, 노동상담, 문화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비
물
의
가
업
의
위
하
에

#여성 노동자

“돌봄·가사 노동자 “우리는 봉사자·아줌마·하녀가 아니다”
“대한민국 여성에게는 노동부가 없다”
“손님이야말로 슈퍼 甲? '뷰티 업계 감정 노동자'의 눈물”
“청소 노동자, 급식조리사...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 임금도 깎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2017)에 따르면
여성취업자의 46.4%는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한다. 여성노동 대부분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으며 감정노동과 성희롱 같은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도 크다.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지부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각각 도봉구 지역 학교·병원
급식, 청소 노동자와 뷰티업계 종사자, 이주 가사
노동자에 관심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과 실태조사를
해나갔다.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지부

1

단체명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지부

사업명

일하는 도봉구 여성들의 건강체조교실 “생생척추 튼튼관절 123”(2015)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5길 11, 한성빌딩 6층

홈페이지

cafe.daum.net/dbnodong

단체소개

2013년 설립된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지부는 학교급식 노동자, 한전병원⁹⁾분회
등 13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도봉구 내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노동법률상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조합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
- 최저임금인상 관련 현수막 게시, 거리캠페인 진행
- 한전병원 분회 임단협 교섭과 투쟁전개 등

9) 한전병원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다. 본래 한일병원이었으나 2012년
한전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년,
다시 한일병원으로 개칭되었다.



일하는 도봉구 여성들의 건강체조교실 “생생척추 튼튼관절 123”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지부는 학교·병원 급식, 아파트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고, 노동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방도를 찾을 수 있도록 <일하는 도봉구 여성들의 건강체조교실 “생생척추 튼튼관절 123”>을 진행했다. 123체조교실은 ‘여성 노동자 노동현실과 자존감’ 강의를 시작으로 ‘바른 자세와 바르게 걷기 알기’,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운동’, ‘무릎·발목 관련 운동법 알기’ 등 총 10강의 실습과 복습위주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봉구 지역 비정규직 여성·가사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자신을 보살필 겨를이 없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돌아보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동료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

성과

- 근골격계를 이루고 있는 각종 분야별 맞춤형 강좌로 수강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며, 여성건강에 대한 교육, 여성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향상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 비정규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부상을 먼저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 향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노동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 도봉구내 여성 노동자 건강권 실태파악과 개선방향 모색, 도봉구 일반노조와의 연계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단체명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업명

여성취약직종 근로실태조사사업 - 피부관리사 등 뷰티업계 종사자(2015)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0길 9-4, 2층

연락처

02-822-5054

홈페이지

www.yeono.org

단체소개

2001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300여 명의 공인노무사와 노동관련 전문가들이 여성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 상담사업 : 고용노동부 지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교육사업 : 취약계층 노동법 교육사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사업 등
- 법률지원사업
- 일자리 운영방안,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사업
- 성희롱 예방메뉴얼 책자 발간 등



여성취약직종 근로실태조사사업 - 피부관리사 등 뷰티업계 종사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비가시화되어 알 수 없었던 뷰티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에 앞서 기존 연구 문헌조사와 미디어 등을 통해 사례를 찾고, 피부·네일관리 여성 노동자 15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직업과 산업의 특성을 파악했다. 그 결과 뷰티서비스산업은 수준 미달의 학원 교육시스템으로 자격증 취득이 용이해 창업이 쉽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산업은 점차 포화상태가 됐고, 지망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도제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으로 인식되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를 ‘업계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뷰티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은 감정노동까지 강요받으며 소비자로부터 성희롱, 천한 직업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받고 있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뷰티산업 교육과 자격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노동관계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고질적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존중 문화가 논의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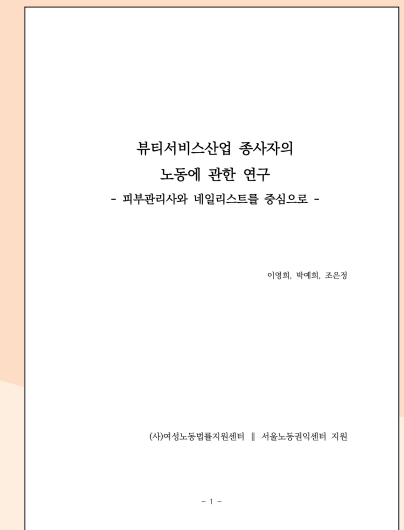
성과

-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인서비스노동 및 연구대상인 뷰티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할 이론화 작업이 많지 않고, 대부분 설문 조사를 통한 객관적 정량적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 피부관리사와 네일아티스트 15명을 모두 섭외하여 완성도 있는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 피부관리와 네일아트라는 구체적인 업종별 서비스노동에 대한 경험연구를 수행한 유일한 연구로 뷰티서비스노동의 특성과 향후 그루밍산업¹⁰⁾ 연구나 친밀노동 연구의 중요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지원사업 이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사업 완료 후 뷰티서비스산업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노동법 강의를 진행했다.

10) 그루밍(Grooming)족은 패션과 미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남성들을 말한다. 그루밍산업은 그루밍족을 위한 관련 산업으로 화장, 헬스, 피부관리 등이 포함돼 있으며 범주가 넓고 다양하다.



뷰티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노동에 관한 연구 / 2015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3

단체명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업명

이주 가사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2017)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7, 4층

연락처

02-785-3238

홈페이지

www.kohwa.or.kr

단체소개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여성실업자사업단을 모태로 2004년 전국조직으로 설립됐고, 2015년 사단법인격을 취득했다. 현재 전국 12개 지역의 가사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

- 가사 노동자 노동권 보장 운동 : 가사 노동자 노동법 교육 및 6.16 전국 동시 캠페인 등
- 사회적인식 개선 운동 : 가사서비스 이용자·종사자 윤리지침 발간, 소비자단체(생협)·지역단체 등에 공동 교육 및 홍보 등
- 현장 리더십 개발 : 가사 노동자 조직활동가 직무 교육, 가사 노동자 임원·중견회원 리더십 교육
- 좋은 돌봄 만들기 : 좋은 돌봄을 위한 경기도 사회서비스 순회간담회 등



이주 가사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국내 노동자들보다 더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안하고자 2017년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조사는 문헌연구, 양적·질적 조사, 자문회의로 이루어졌다. 양적 조사는 가정 내에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 노동자 62명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는 이주 노동자 7명, 에이전시 3명, 전문가 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문회의는 내국인·이주 가사 노동자 조직, 지원기관 등 6명을 대상으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실태와 관련기관 사업을 공유하고 이후 가능한 사업을 의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내국인 가사 노동자는 출퇴근 시간제로, 이주 가사 노동자는 전일제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장시간에 걸쳐 청소, 세탁, 음식준비와 설거지, 아이·노인 돌보기 등 복합적 업무를 해야 하지만 일정한 수면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민간 중개업체들은 수수료나 부당한 요구를 하며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믿을 수 있는 일자리 알선 센터를 통해 상담, 문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차별 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길 원했다. 서울시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센터 혹은 정책을 통해 정보제공과 상담, 직무 교육, 건강 프로그램과 심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서 국내 가사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이주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노동법제를 만들고 사회적인식과 대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성과

- 이주 가사 노동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첫 연구 성과로 현장활동가, 노무·법률 전문가의 공동학습 및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 이주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부재와 사회적 배제문제는 내국인 가사 노동자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양자를 통틀어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했다.
- 가사 노동자, 비영리단체 및 기관 활동가들이 모인 토론회를 통해 내국인 가사 노동자에게도 이주 가사 노동자의 실태를 알려 연대의식을 고취했으며,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



인절미

단체명

인절미

사업명

인쇄인 절대공감 미래비전 프로젝트 시즌 2-소문(2015)
편집디자인과 인문학의 만남(2016)

소재지

서울시 중구 퇴계로39길 12-5, 2층

단체소개

인절미(인쇄인 절대공감 미래비전 프로젝트)는 2014년, 2만 명이 넘는
을지로 인쇄산업 종사자의 문화와 노동복지 찾기 모임으로 결성됐다.

주요 활동

- 을지로 인쇄골목을 촬영하는 인사동(인쇄골 사진동아리) 운영
- 수동형 인쇄 레터프레스 인쇄 강좌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 인절미 프로젝트 정기모임과 교육활동
- 동네잡지 '매거진 총무로' 창간 등

#도심제조업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에도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제조업은 '정체'”

“45~49살 일자리, 제조업 생산직 4만6천개 사라졌다”

을지로의 2만 명 인쇄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인쇄시장 불황과 도시 재개발 압박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지역 내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다. 봉제 노동자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봉제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2015)에
따르면 소음과 먼지로 가득한 작업환경에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인절미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을지로
인쇄업 종사자와 봉제 노동자에 관심을 두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FGI를 진행했다.



인쇄인 절대공감 미래비전 프로젝트 시즌 2-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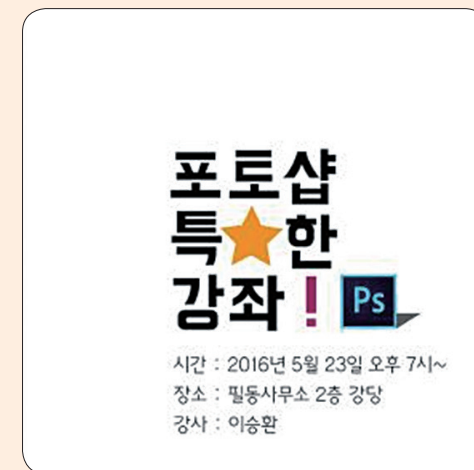
인절미는 을지로 지역 인쇄제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중소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쇄시장의 불황과 도시 재개발 압박으로 노동환경 또한 열악해지면서 을지로 인쇄산업 노동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목소리를 듣고자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사업을 통해 인쇄산업 종사자를 위한 소모임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고, 다양한 소모임, 네트워크 파티도 진행했다. 을지로 인쇄골목 노동자 문화 활동의 의미를 찾고 이후 2016년 계획을 나누는 워크숍도 진행했다. 또한, '매거진 총무로'를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동네잡지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편집디자인과 인문학의 만남

2016년 인절미는 을지로 인쇄골목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동자 자조 모임을 형성하고, 편집디자이너 보수 교육과 인문학 모임을 기획했다. 편집디자인 관련 업무 교육은 매월 1-2회 진행됐으며, 총 2회의 인문학 특강도 열렸다. 특강은 '남성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성예술가들', '을의 편에선 예술가들' 등이 진행되었고, 매회 평균 15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인문학 강의는 새로운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노동자들이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향후 관련 교육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느꼈다.

성과

-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예상보다 많은 인쇄업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 편집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기존 모임 인원의 결속을 다지는 매개 역할을 했다.
- 인문학 강의를 통해 인쇄업 노동자들이 직업 교육뿐 아니라 인문학 강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명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업명

봉제 노동자 커뮤니티 FGI사업 및 권익향상사업(2017)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연락처

02-2632-4754

홈페이지

kctf.nodong.net

단체소개

2004년 설립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화학·섬유·식품산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약 9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최근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파리바게뜨지회, 카카오지회, 네이버지회 등 신규노조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활동

- 약 120여 개 사업장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 전국 공단 지역 노동권 캠페인 및 노조 조직화사업
- 노동조합 신고조직 활동, 조합원 교육
- 노동안전사업 등



봉제 노동자 커뮤니티 FGI사업 및 권익향상사업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봉제 노동자 연구사업을 실행하여 봉제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고, 봉제 노동자 중심 노동조합 조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봉제 노동자 구성 및 산업 특성에 대한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봉제 노동자 조직사업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자치구별 커뮤니티 및 연구자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봉제 노동자 근로조건과 건강권 조사 설문지를 기획하였고, 지역별 실태 탐방과 봉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만나 FGI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과 공동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봉제산업을 알리고 노동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 흩어져있던 봉제 노동자 커뮤니티를 발굴할 수 있었으며 서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공감을 확대할 수 있었다. FGI는 봉제 노동자의 공동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고, 이를 기초로 권익향상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의 토대를 구축했다.

성과

- 서울시 봉제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 낮은 근로조건에 있는 봉제 노동자의 실태조사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각 자치구별 루트를 형성했다.
- 봉제산업 관련 단체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업단 취지 공감을 확대할 수 있었다.
- 조사된 커뮤니티별 FGI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다음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

지원사업 이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봉제 노동자 FGI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봉제인노동조합 조직에 힘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을 포함, 봉제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단체들이 모여 봉제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노조 창립을 준비했다. 또한 노조 내부에 공제회를 두고 조합원들의 적립금으로 보건의료, 상조, 소액대출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역 9만 봉제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서울봉제인노동조합을 창립했고 봉제공제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여 공부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은 개소와 함께 시작되었고 내년이면 5년차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를 노동권의 증진, 노동인권 향상, 노동의제 발굴 등 한껏 어려운 말로 지었지만 쉬운 말로 풀어보자면 ‘몸집 큰 중간지원조직인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노동자를 지역 노동단체들을 통해 만나고자 만들어낸 사업’이다. 늘 지원이 필요한 작은 단체들은 현장 경험을 살려 노동자를 모으고,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들을 통해 노동자를 만나니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사업 목표가 갖는 아름다움을 구현하자니 이 사업을 관리하는 일이 때론 매우 어려웠다. 우리는 서울시가 공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사업이 갖는 대규모 효과를 지속적으로 어필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시도했는데 하나는 모든 지원 단체 사업 현장을 매달 한번 이상 방문하는 것, 또 하나는 사업 평가를 철저히 함으로써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었다.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노동자들이, 왜 계속, 열심히 참여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일은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지원 단체 활동가들이 서로의 사업에 관심 갖고 조언하는 공동 평가를 시도했는데 이를 통해 노동자 지원사업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했다. 새로운 시도가 빛을 발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이지만, 노동복지기반을 어디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게 했다고는 생각한다.

생전 처음 보는 사업 관리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컨설팅 워크숍, 평가 워크숍 같은 낯선 자리에 참석하느라 고생한 지원 단체 활동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도에 동참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하여 노동자, 동지, 동료 모두가 ‘이웃’이 되는 현장이 탄생하길 바란다.

애프터노트

애프터노트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들이 얻은 다양한 경험의 기억이 담겨있다. 단체들은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서울 지역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이를 통해 아쉬운 점과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각기 다른 경험일지라도 지원사업이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공통분모일 것이다.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소회를 담았다.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

2016년에는 롯데월드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기반 노동사업에 대한 고민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2017년에는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이라는 노동연대 단체를 만들어 지역 내 노동사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지역노조인 송파유니온을 만들었다. 이렇듯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송파는 노동사업에 있어 질적,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모색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지역에 산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발맞춰가고 싶다.

서울노동광장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사업비인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물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어 든든하다. 노동복지센터가 없는 곳들은 특히 어려움이 많아 이후에도 (지원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통하려고 애썼던 기획협력팀에 감사를 전한다.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를 시작하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역기반 구축과정이었다. 동대문의 지역 특성상 지역단체 간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데, 컨소시엄으로 묶이면서 관계의 발전이 있었다. 주도적으로 운영위와 사업을 진행한 덕분에 우리동네노동권찾기의 지역 내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 현재는 지역 내 현안과 관련한 연대요청이 먼저 들어오기도 한다. 지역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구축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 대상이 정규직 노조의 조합원들이었다. 이후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을 확장하고 사업의 단계를 높일 예정이다.

리빙액트

처음에는 도심지에 너무 많은 심야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심야노동을 2년 간 하며 사회생활과 건강 모두가 망가졌던 경험이 심야노동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 수면장애를 겪고 있지만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 등 젊음을 혹사해서 만드는 도심지 심야노동의 실태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아하셨던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누군가의 삶 일부를 혹사시키며 이루어지는 노동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모든 노동자 여러분 파이팅!

알바상담소

사업 중 지원해주는 개별 컨설팅도 좋았으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다른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중간보고 형식으로 프로그램 배치되면 좋겠다. 사업 내용과 취지는 좋았으나, 불특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법 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다양한 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에 노동조합은 많지만 사업장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 은평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자료로 사업을 제안했다. 오래된 자료라 민망하기도 하고 정확하지도 않다. 새로운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건비 책정도 필요하다. 단순인건비라도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력충원이 해결책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지원으로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많은 전문 과목 선생님들의 노동현장이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주일에 수 시간씩 실습을 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공간임에도, 실습실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음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인데도 학교를 섭외하거나 교육청의 협조를 얻는 데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권익센터-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가 좀 더 긴밀하다면 다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희망나눔센터는 밥상과 기행사업을 추진했다. 상담사업은 권리지킴이들이 전담했다. 소금꽃 운영위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조직 운영팀을 꾸린 점은 나름의 성과이다. 2017년 사업은 초기에 타깃을 설정하고 진행했다. 노동자마을학교 '소금꽃' 1기와 2기의 매칭이 목표였는데 1기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권리지킴이사업 덕에 단체가 한 단계도 주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2년째 사업(2016, 2017년)을 진행하면서 '관성화' 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기획, 집행, 마무리하는 각각의 시점에서 사람을 남기는 방안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 비정규직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것이 고충이다. 함께 사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중단된다. 이런 때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연대단위를 꾸려 연대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소통과 커넥팅이 필요하다.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성북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사업은 활발하지만 노동분야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센터의 노동증진사업의 도움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깊게 해보려하는데 먼저 주변을 둘러보면 그동안 많은 사업 방식이나 아이템이 개발이 됐으나 어찌 보면 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계가 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선한 도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성북은 봉제업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 구 중 하나라, 그 중심으로 고민을 해보려 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들이 선도적으로 시도해 주셨으면 한다.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지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문제는 중요하다. 예방체조와 같은 프로그램은 많이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업무와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서로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업종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참가 전 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 아닌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인절미

서울 지역의 인쇄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고민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인쇄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복지 사각지대인 인쇄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적 기반(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공모사업이었던 인절미 프로젝트는 중요한 시도였다. 앞으로 인쇄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의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권익센터에서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출처

- 2015 노동권의 증진활동 지원사업 현장 점검 및 중간평가 추진결과
- 2016 노동권의 증진활동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 2017 노동권의 증진활동 지원사업 평가 토론회
- 각 단체들의 담당자

노년층의 권리와 복지

- 컨소시엄(지역)명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1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동대문 마을모임/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노무법인 현장/경희대시설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남운수지부/동명기술공단지회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노무법인 윤슬/행동하는 동대문 연대 행동/공망 협동조합

2 강동우리마을 노동복지 네트워크

강동희망나눔센터/강동시민연대/전교조 초, 중등 강동송파지회/민주노총 강동구지부/희망연대노조/강동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풀쩍

3 강서지역 노동존중 네트워크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공간/민주노총서울본부 강서구지부/강서양천청소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음/강서양천비정규직노동자 연대모임

4 송파구

송파시민연대/민주노총 남동지구협/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송파노점상 연합회

5 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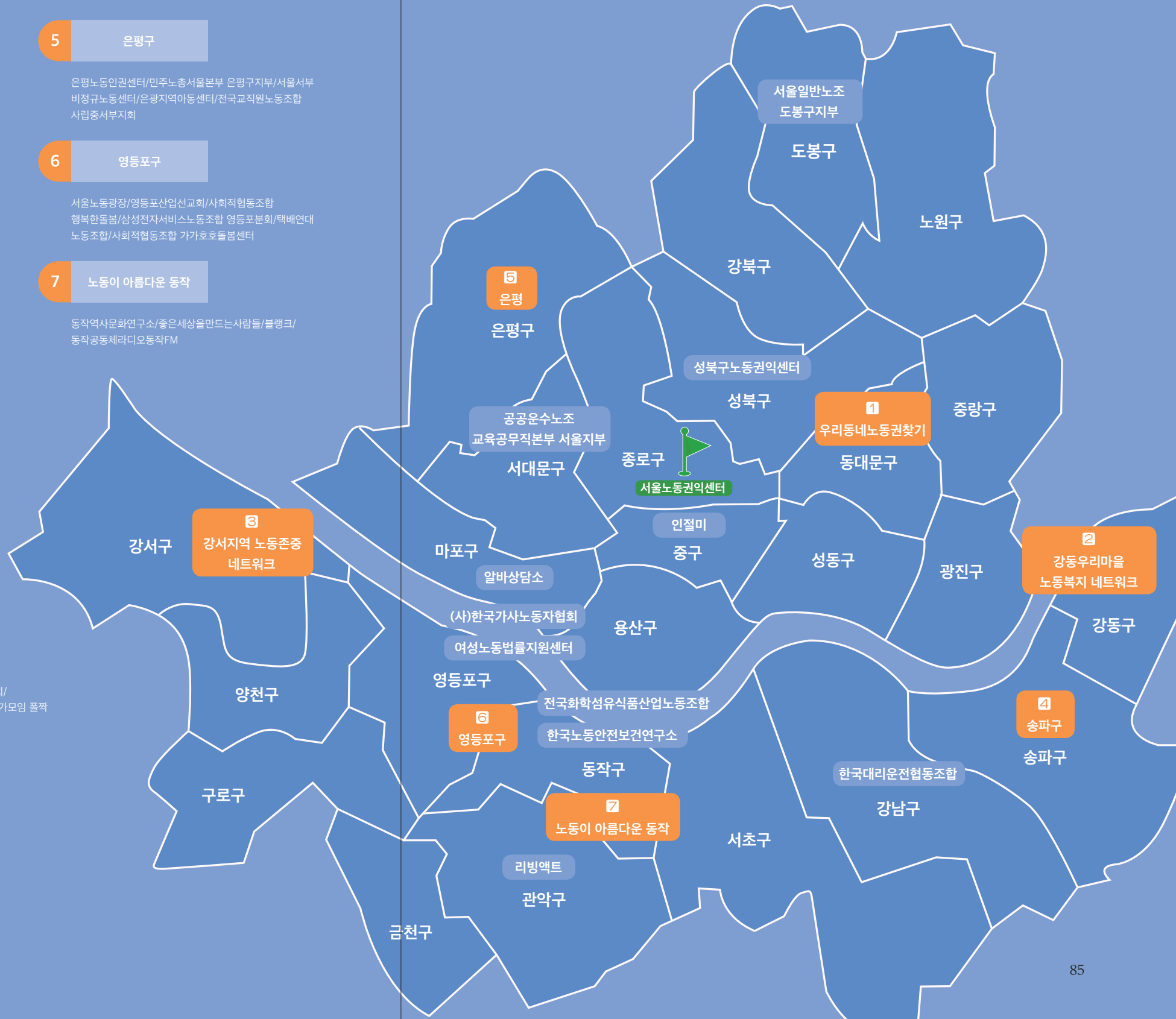
은평노동인권센터/민주노총서울본부 은평구지부/서울서부 비정규노동센터/은광지역아동센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중서부지회

6 영등포구

서울노동광장/영등포산업선교회/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영등포분회/택배연대 노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가가호호돌봄센터

7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

동작역사문화연구소/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블랭크/동작공동체라디오동작FM



발행인 정보

발행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인 문중찬
담당 기획협력팀
기획 및 편집 기억발전소
디자인 오피센트

발행일 2018년 12월 18일
발간등록번호 979-11-87917-17-5

문의 070-4610-4056 (기획협력팀)
대표전화 02-6295-4349 (서울노동권익센터)
070-5101-5431~3 (휴서울이동노동자서초쉼터)
02-722-7214 (휴서울이동노동자북창쉼터)
070-7005-5595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
1833-8261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팩스 070-8250-4349

홈페이지 www.labors.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laborcenter

이메일 labors@labors.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4층
(휴서울이동노동자서초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 단암빌딩 별관 2층
(휴서울이동노동자북창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5, 송백빌딩 3층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